

# 세븐틴, 포브스 인터뷰 “팬들에게 긍정적 영향 주고 싶어”

그룹 세븐틴이 유력 경제지 포브스(Forbes)와 단독 인터뷰했다.

포브스(Forbes)는 16일 ‘Seven-teen Talks Songwriting, K-Pop Industry And Group Dynamic’이라는 제목으로 K-POP과 세븐틴의 음악에 초점을 맞춘 심층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포브스는 “세븐틴은 K-POP 그룹 중 가장 역동적인 그룹 중 하나이며 펑키하고 매혹적인 군무로 유명해진 것은 물론 멤버들이 다재다능한 곡을 탐구했다.” 라고 소개하며, 지금까지 이들이 쌓아온 음악성과 더불어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KCON 무대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열광시키게 만들었던 세븐틴은 “평소보다 더 신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에너지가 관객에게 전해지는지 궁금하고, 더 많은 스테이지에서 저희 콘서트를 개최하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자체제작돌로 잘 알려진 세븐틴에게 셀프 프로듀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세븐틴이 표현할 수

Seventeen Talks Songwriting, K-Pop Industry And Group Dynamic



있는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좋아서 음악 작업을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라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우리 음악을 통해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라며 깊은 생각과 애정을 드러냈다.

K-POP이 글로벌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K-POP 가수로서 행복하고 생각만해도 즐거워요. 저희 세븐틴도 언젠간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모든 것을 언제나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인터뷰 말미 세븐틴은 “팬들이 저희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어떤 무대에서도 감사하며 열심히 공연하려고 노력해요. 또한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 여자친구, BBC 다큐멘터리 출연

여자친구(사진)가 K-POP을 대표해 영국 BBC와 인터뷰했다.

여자친구 소속사는 16일 “최근 여자친구가 영국 공영 방송 BBC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K-POP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 BBC 측의 요청이 있었고, 여자친구가 한국 대표 걸그룹으로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송은 9월 중 BBC4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된다”고 전했다.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는 유럽 내에서 높아진 K-POP의 위상과 인기를 K-POP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직접 체험하고, 특히 탁월한 시스템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음악방송을 통해 K-POP 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다. BBC 제작진은 한국을 방문,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K-POP 가수와 그들을 발굴하고 키워낸 K-POP 업계와 시스템에 대해 집중 취



재 보도할 예정이다.

2015년 ‘유리구슬’로 데뷔한 여자친구는 매 앨범마다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K-POP 대표 걸그룹으로 우뚝 섰다. 최근에는 여자친구의 성장과 열정을 담은 신곡 ‘열대야(FEVER)’로 음악방송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다시 한 번 진가를 입증했다.

# 토마스 맥도넬, 한글로 일본 ‘후쿠시마 쌀’ 언급



‘한글 수집’이 취미인 미국 배우 토마스 맥도넬(사진)이 한글로 일본 후쿠시마 쌀을 언급해 화제다.

16일 토마스 맥도넬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 후쿠시마 쌀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글을 한글로 올렸다. (아래)

토마스 맥도넬은 방호복을 입고 벼를 추수하는 사진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벼 추수 현장이에요. 일본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주로 먹인대요. 추수할 때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걸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혀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제품 및 여행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러한 토마스 맥도넬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명예 한국인”이라며 그의 행동을 응원했다.

토마스 맥도넬은 2008년 ‘포비튼 킹덤-전설의 마스터를 찾아서’로 할리우드에 데뷔했다. ‘다크 새도우’ ‘라이프 애프터 데스’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MY BABY. MY STYLE.

#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